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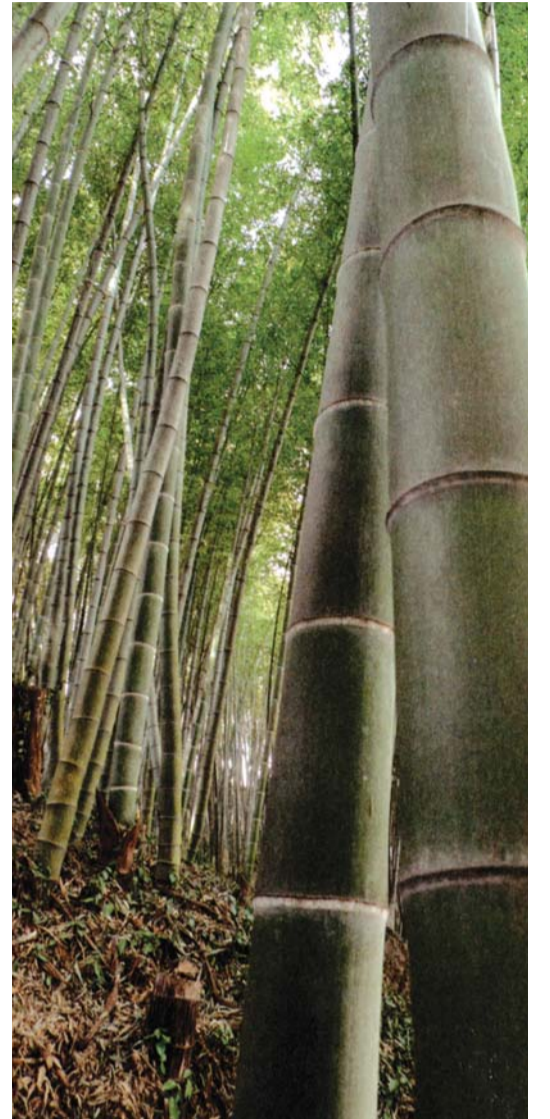
인간에게 던지는 24가지 화두...식물을 보고 깨우치다



박성천 기자가 추천하는 **책**

식물에게 배우는 네 글자

이선 지음



곤충을 유인하고 꽃가루받이를 위해 가짜 꽃을 섞어 자신을 꾸미는 수국(왼쪽)과 700년전 아라가야시대를 거슬러 탄생한 듯한 아라홍련의 자태.

“우리의 속담이나 사자성이 옛사람들이 세상을 보는 지혜와 통찰이 담긴 절묘한 표현으로 많은 부분이 식물이나 동물 그리고 자연현상을 빗대어 인간사를 비유해왔습니다. 식물도 우리처럼 서로 사랑하고 갈등하며 생로병사를 겪습니다. 사자성이 중에는 여러식물을 경교하거나 교활함을 경계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나 식물세계에서는 그러한 예를 거의 찾아볼 수 없으니, 인간세상보다 더 정직하고 공평한 세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미 고인이 되신 어머니께서는 ‘남을 보고 깨우치거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이제는 ‘나무를 보고 깨우치거라’로 들립니다. 이래저래 식물은 참으로 고마운 존재입니다.” (본문 중에서)



는다. 연리지는 뿌리가 다른 나무가 서로 엉켜 한 나무처럼 보인다. 부모와 자식의, 부부의, 또는 연인이 끌어안고 손을 맞잡고 있는 모습이 연상된다. 중국 후한 말에 효성이 지극했던 채유가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무덤가에서 시묘살이를 했다. 무덤가에 자라던 나무가 언제 하나의 나무로 되었다. 아울러 백낙천은 시에서 “하늘에서는 비익조가 되길 바라고, 땅에서는 연리지가 되길 바란다”고 노래했다. 식물들의 사는 모습을 인간사회와 연계해 사자성어로 풀어낸 책이 발견됐다. 저자는 “소나무의 수관들이 서로 맞물려 가지를 뻗은 모습에서 ‘누울 자리를 밝가며 발을 뻗는다’는 속담을 떠올렸다”고 한다. 이선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조경학과 교수의 책 ‘식물에게 배우는 네 글자’는 식물이 인간에게 던지는 24가지 화두를 담았다. 독일 프라이부르크 대학교 식물 및 임지학 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전문위원을 역임한 전문가의 시선이 녹아 있다.

꽃은 열매를 맺을 수 있으나 여부에 따라 진짜 꽃과 가짜 꽃으로 구분된다. 가짜 꽃은 생식기능이 없는 무성화, 중성화라고 한다. 진짜 꽃과 가짜 꽃이 피는 식물은 대개 진짜 꽃의 크기가 작아 곤충들 눈에 띄지 않는다. 그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진짜 꽃 옆에 이보다 큰 가짜 꽃을 피워 곤충을 유인한다. 저자는 진짜와 가짜를 뜻하는 사자성어로 ‘수상 개화’ (樹上開花)를 이야기한다. 그러면서 삼국지연의에 등장하는 일화를 소개한다. 유비가 조조의 군대에 쫓길 때, 장비가 조조를 막기 위해 계책을 세웠다. 병사가 부족하지만 많이 보이게 하기 위해 말 꼬리에 나뭇가지를 매달고 달리게 했다. 자욕하게 먼지가 이는 모습에 수많은 병력이 있다고 착각한 조조의 군대는 쫓꾸니를 뺐다. 이는 가짜 꽃으로 곤충을 유인하고 꽃가루받이를 하는 전략과 유사하다. ‘가짜 꽃으로 승부를 보는 식물’이 있는 데 수국과 불두화가 대표적이다. 수국은 산수국의 가짜 꽃을, 불두화는 백담나무 가짜 꽃을

유종한 것이다. 그러나 꽃의 진짜와 가짜 구분은 의미가 없으며 열매와 상관없이 그 자체로 아름답다. 오히려 꽃은 ‘당신들 중 누가 진짜인가’라고 묻는다. 어둠 속에서 힘을 기르는 전나무를 빗댄 도광양회 (船光養晦)도 흥미롭다. 숲의 그늘에서 햇빛을 받으며 말없이 힘을 키우는 전나무는 인내를 상징한다. 음지에서 견디는 내음력이 강한 나무다. 1992년 당시 오핑의 외교노선은 도광양회였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힘을 기른다’는 뜻으로 미국과 대등하게 될 때까지 몸을 낮추며 국력을 배양한다는 의미다. 우리 사회에서도 내일을 위해 어둠 속에서 숨죽이며 때를 기다리는 이들이 적지 않다. 코로나 인한 실업과 경제난, 스트레스와 우울감을 견디며 고독하고 치열한 시간을 견딘다. 저자는 “어서 아들 주변에 밝은 빛이 비쳐 전력 질주할 수 있기를, 그리하여 언젠가 그동안 감춰두었던 더 큰 빛으로 세상을 밝히기를 학습고대한다”고 말한다. <공리·1만7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예로부터 ‘비목비초’라 불렸던 대나무.

다산의 사랑

정찬주 지음

내 우울한 젊음의 기억들

홍상화 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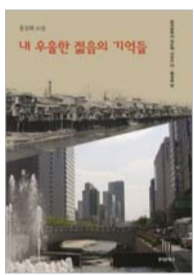
돌아온, 돌아와야 할 우리 문화유산

이상근·김정윤 지음

18년 유배생활에서 260여 권의 저서를 남긴 ‘조선의 르네상스인’. 바로 다산 정약용이다. 정약용은 여러 수석어가 있지만 ‘자신을 극복한 인생’을 산 학자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다산을 다룬 책들은 많이 나왔다. 소설, 인문서, 학술서 등 그의 삶과 학문을 흠모해 펴낸 책들은 셀 수 없이 많다. 그러나 많은 책들 가운데 떠오르는 저서가 어떤 게 있을까? 대체로 정형화된 책들이 다수를 차지한 터라 선풍 기억이 나지 않는다. 아마도 사람 냄새 나는 인간 정약용을 다룬 책이 별로 없어서이기 때문이다. 정찬주 작가가 펴낸 ‘다산의 사랑’은 인간적인 면모에서 접근한 소설이다. 허구라는 입체적인 구성과 묘사가 풀어내는 필진함은 역사가나 학자들이 조명한 정약용의 면모와는 확연히 다르다. 작가는 이번 소설에서 정약용을 주인공으로 그려내지 않는다. 그렇다고 서사의 중심이 다산이 아닌 것은 아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다산은 소설의 배경으로 자리잡고 있다고 보는 편이 맞다.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머문 시간은 장장 18년. 그의 생애 75년에서 18년이 차지하는 의미와 비중은 자못 크다. 작품은 유배기와 해배 이후의 사건을 교차하면서 진행된다. 사건의 동력을 제공하는 이는 소설 남당네(홍임 모)와 그녀가 낳은 딸 홍임이의 이야기 한 축이다. 또 한 축은 강진에 유배 살면서 만난 남모 땅의 제자 18명의 이야기다. 남당네와 서너 홍임이 그리고 다산을 스스로 섬겼던 제자들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다양하면서도 깊은 생각거리를 제공한다. 작가는 “위대한 실학자 다산 정약용이 아닌, 우리가 몰랐던 인간 정약용의 고독과 눈물, 회한에 눈을 주지 않을 수 없었다”고 책 발간 의미를 밝혔다. <한결미디어·1만5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책 제목부터 낭만적이며 시작이다. 눈길을 끄는 ‘내 우울한 젊음의 기억들’이라는 소설집은 모두 8개의 중단편이 묶여 있다. 저자는 2005년 이수문학상을 수상했으며 ‘한국문학’ 주간을 역임한 홍상화다. 그동안 작가는 독재와 부패의 시대상황 속에서 권력과 돈을 추종하는 우리 사회 민낯을 그린 ‘거품시대’, 이데올로기를 조월한 인간 존재의 본질적 문제를 탐구한 ‘정보원’을 발표했다. 이번 소설집은 이전의 두 개의 시선을 하나로 품으면서도 세상에 대한 따스한 시선, 인간에 대한 애정을 담았다. 원래 이 작품집은 ‘낭바우 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2000년 출간됐던 것을, 2년 전 타계한 문학평론가 김윤식 선생을 기리는 마음에서 작가가 재구성해 선보인 것이다. 김윤식 선생에 대한 헌사이며 작가 자신의 문학적 열정을 새롭게 지피는 다짐이기도 하다. 먼저 ‘인생의 무늬’는 전쟁과 육성, 사랑과 기적을 주제로 삼아 뜨겁고 신산한 인생의 무늬를 보여준다. ‘낭바우 가는 길’의 세계는 ‘인생의 무늬’의 한 축을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어린 시절 피란지였던 낭바우에서의 50년의 시간이 지난 후, 소설가로써 명망을 얻은 주인공이 칼리만자르까지 날아갔다가 결국 낭바우로 귀환하는 서사 구조가 펼쳐진다. ‘독서리 밭들이 남간 자국’과 ‘겨울, 봄, 그리고 여름’의 서사는 한국의 특수한 정치경제적 문제를 화두로 했다. 전자는 한국에서 실패한 삶을 살고 새로운 인생을 찾아 미국으로 간 두 남성의 이야기이며 후자는 실패한 사업가의 삶을 통해 처절한 한국의 현실을 고발하는 한편 희망의 근원으로서의 가족애에 집중한다. <한국문학사·1만12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2005년 7만4434점, 2012년 14만9126점 그리고 2020년 19만 3136점. 해를 거듭할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이 숫자는 최근 15년 동안 집계된 국외소재 문화재 수를 뜻한다. 타지에서 홀로 고국을 빛내며 한자본지를 꾸꾸는 성보들은 어떤 경로와 방식으로 곳곳에 흩어지게 됐을까. 최근 발간된 ‘돌아온, 돌아와야 할 우리 문화유산’은 총 30개의 에피소드로 나눠 그간 알려지지 않은 반출 문화재의 숨은 이야기를 전한다. 책은 2006년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신도회 문화재연구소위원회를 시작으로 2014년 문화재연구소국제연대 그리고 현재 재단법인 문화유산회복재단에서 활동하는 이상근 이사장과, 어릴적 루브르에 있는 이집트 미라를 보고 시작된 단순한 호기심이 불발 반출 문화재에 관한 석사 논문까지 이어지게 되었다는 김정윤 연구원이 공동 집필했다. 특히 ‘잃고 있고 또는 숨겨진’ 우리 문화유산 가운데 약 42%(약 8만여점)를 차지하고 있는 일본에 대해 집중조명한다. 현재 한반도 남아있는 ‘백제 반가사유상’, 일본 국외도서관에 소장된 세종 때 제작한 별자리 지도인 박연의 ‘혼천도’, 현재 환수 논란의 중심에 있는 백제 미소보살인 ‘금동관음보살입상’, 일본 문화재 홈페이지에 중국 후한시대와 고려에서 제작한 것으로 소개된 ‘금은상감동판’ 등을 다룬다. 또 일본에서 구경거리가 된 왕릉 수호신 ‘석인상’, 일본의 보검 ‘칠지도’와 백제의 ‘상감기법’, 가토 기요마사가 강탈한 ‘의방유취’ 등도 소개한다. 아울러 금속활자본 ‘직지심체요절’, ‘외규장각 의궤’, ‘원각경’ 등 프랑스에 있는 약 3000여점의 문화재에 대해서도 이야기한다. <지성사·1만8000원> /전재재 기자 ejf621@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66년
1954 ~ 2020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Passion Vision Truth

열정
꿈
진리
소망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2021학년도 광신대학교 학부 / 대학원 신입생 모집

학 부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계 열	모 집 단 위	모 집 인 원
인 문 사 회	신 학 과	15
	한국어교육학과	2
사 범	복지상담융합학부 (사회복지학 전공 / 교정행생교육상담학 전공)	3
	유아교육과	3
예 능	음악학부 (음악학 전공 / 실용음악학 전공)	6
	총 계	29

※ 신학과는 군중서관후보생(군중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 한국어교육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증(2급)을 취득할 수 있음.
※ 복지상담융합학부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지도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학부 전형일정

점시모집
· 원서접수: 2021. 1. 7(목) ~ 11(월) · 전 형 일: 2021. 1. 18(월)

대 학 원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대 학 원	과 정	모 집 학 과	모 집 인 원
신학대학원	석사	신학과(M.Div.)	30
		성경연구학과(Th.M.)	10
		신학과(Ph.D.)	6
일반대학원	박사	목회학과(D.Min.)	2
		유아교육학과(D.Ed.)	5
		사회복지학과(D.S.W.)	6
		상담심리치료학과(D.C.S.)	7
		코칭심리학과(D.Psy.)	7
		통합예술심리치료학과(D.C.S.)	5
		휴먼서비스교육학과(D.Ed.)	12
		통합예술심리치료학과(D.C.S.)	10
		신학과(Th.M.)	14
		유아교육학과(M.Ed.)	8
상담치료대학원	석사	상담심리치료학과(M.A.)	15
		청소년상담지도학과(M.A.)	10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코칭심리학과(M.Psy.)	10
		재활심리치료학과(M.A.)	10
		사회복지학과(M.S.W.)	15
국제대학원	석사	평생교육학과(M.Ed.)	10
		한국어교육학과(M.Ed.)	20
음악대학원	석사	휴먼서비스교육학과(M.Ed.)	8
		음악학과(M.A.)	6
		실용음악학과(M.A.)	6

■ 전형일정

일반전형
· 원서접수: 2020. 11. 30(월) ~ 12. 9(수)
· 전 형 일: 2020. 12. 11(금)/12(토)

믿음이 있는 대학 · 믿음을 주는 대학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신택지소로 36 입학문의 ▶ 학 부 0621 605-1114 / 대학원 0621 605-1115